

# 신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한 화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신나는 세상이 곧 올것이라고 믿습니다. 훨씬 어려웠던 시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우러진 신나는 세상, 한화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슴에 남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http://www.hanwha.co.kr> 더욱 상세한 그룹소개 및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한 화 그룹

會長 金昇淵

# 고려상 건팅 고려컨설팅

代表 金政壹

광주시 서구 화정동 928-2  
금호타운 105-601  
TEL : (02) 514-3285  
TEL : (062) 373-7166~7

# 金科元神經外科醫院

院長 醫學博士 金科元



病院 : 光州廣域市 東區 錦南路5街 101  
電話 : (062) 228-2471  
自宅 : (062) 2223-7200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進士公 15代孫
- 光州廣域市 醫師會名譽會長
- 光州全南 佛教信徒會長
- 光州博物館會 會長

신정수영장(완벽한 수질관리 최고의 강사진)  
신정헬스(고객의 체력관리와 몸매관리)  
신정사우나(향토사우나, 향토방, 야간 가동)

社長 金活龍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223-3  
電話 : 052-261-3800  
(신정수영장)

- 中央宗親會 運營委員
- 襄景公派 承旨公 18代孫

<전문공사업>

# 合同技工社

代表 金東胡



사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05-6  
전화 : 409-7723  
FAX : 409-7726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翁谷公 13代孫

稅務士 金沅杰



事務所 : 安東市 雲豐洞 116-29  
電話 事務所 : (0571) 54-1773  
自宅 : (0571) 55-4197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判事公 18代孫
- 嶺南宗親會 理事
- 博約會 安東支會長

# 광일공업(주)

대표 김광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34-3  
전화 : (0331) 34-3171~2  
FAX : (0331) 35-4518

金大永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316  
電話 事務所 : (0581) 71-5588  
自宅 : (0581) 71-5500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翊贊公 16代孫
- 聞慶宗親會 會長

(주)근하공영수  
(주)홍인운수

대표 김삼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7-121  
전화 : (02) 972-2331

### ☀ 순·김 뿌리의 캠페인 ☀

경제 국난시대에 즈음하여

신토불이의 정신으로 우리 종친들의 사업을 도움고자 결집된 힘을 모으자.

“우리 종보에 게재된 광고란의 종친들의 사업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는”

[예] 1) 차량소유 종친들은 한 방울의 기름도 한화에너지를 이용하자.

2) 자라나는 우리 종친 자녀들에게 빙그레 우유와 제품을 애용하자.

위와 같은 거족적인 우리 문중의 결집된 협조정신을 발휘하여 경제국난에 대처한다.

### 清溪電業株式會社

電氣工事·消防設備工事·受配電盤·設計製作  
(動資部承認 第1種電氣工事業 193號)

代表理事 **金 文 載**

서울特別市 中區 水標洞 11-7 (清溪빌딩)  
本社電話 : 265-6558, 275-0732~3  
工場電話 : 877-6227  
自宅電話 : 877-6244



- 中央宗親會 副會長
- 典書公派 寧州公 19代孫

### 鳥嶺産業株式會社

社長 昭俺 **金 喆 熙**

서울特別市 江南區 道谷洞 456-8  
電話 : (02) 572-5059, 573-5968  
自 宅 : 서울特別市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 A 77-803  
電話 : (02) 543-5439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忍百堂公 14代孫
- 서울宗親會會長

### (株) 東南特殊運輸 (株) 東南商運

代表理事 **金 東 洙**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44번지  
사무실 : (0661) 755-0124~5  
FAX : (0661) 755-0188  
자 택 : (0661) 52-8441  
호 출 : 012-610-8913  
휴대폰 : 011-622-3125  
(특수화공약품운송전문) (16K 18K 20K 28K)



- 中央宗親會 運營 委員
- 襄景公派 監察公 17代孫

法務士 **金 東 吾**

事務所 : 聞慶市 店村洞 244-8  
電話 : 事務所 (0581) 555-4887~8, 2740  
自 宅 (0581) 555-4031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判事公 17代孫

### 내외합동법률사무소

中央宗親會 法律顧問  
辯護士 **金 亨 民**

事務所 : 瑞草區 瑞草洞 1678-2  
동아빌라트 2동 403호  
電 話 : (02) 3472-7755  
FAX : (02) 3472-4561



- 中央宗親會 運營 委員
- 節齋公 18代孫

### 한서화물자동차(주)

호남 정기화물  
한서택배제주특송

會 長 **金 相 容**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397-13  
전화 : (0652) 211-1271~2  
(02) 209-6114  
(02) 571-55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6  
한국화물트럭터미널내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



- 中央宗親會 運營 委員
- 襄景公派 南隱公 16代孫



어서공의 22대손 김 정 현

8월 13일 혈연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 흔하지 않은 성을 가진 나와 같은 식구들을 만나는 설렘에 며칠 동안 철야 작업의 피로를 뒤로하고 순천으로 향해 달리는 차에 망설이는 마음을 실었다. 지금도 인상깊이 남은 기억으로 상세한 시골 풍경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종친 어르신들의 정겨운 미소가 생각난다.

먼저 도착한 전국 곳곳에 숨어 있던 형제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이제까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왔지만 그렇게 편하고 쉽게 통하는 만남에 예정된 혈연에 놀람을 금할 수 없었다. 흐뭇한 표정이 새겨진 행사 주관의 종친회 회장님 이하 종친 어른들께서 단상에 서시고, 동원재 앞마당 새로 알게 된 또래 친척들이 정렬한채 입소식으로 시작되었다.

아쉬운 3박4일 일정동안 앉은뱅이 책상에 책상다리를 앉아 역사를 거슬러 같은 또래의 친척들과 웃음꽃으로 조상님의 전적을 경건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잠을 아껴가며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던 알콩달콩 반가운 식구들의 이야기를 손뼉치며 즐기는 게임속에 한 번씩 들리는 고소하고 샘통인 함박웃음으로 즐거움을 함께 나누던 것이 어느새 추억이 되어가는군요. 적잖게 망설였던 자리였지만 이런 기회로 뜻깊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자기충전과 순천김씨 가문의 혈통과 같은 형제로서 얼굴을 익혀 우애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를 맞이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여러 종친 어른들의 열성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전국에서 모인 가족들의 단단한 단합에 큰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다. 좋은 추억과 확실한 친구 같은 친척을 만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종친 어른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양정공의 21대손 김 미 경

평생 잊지 못할 3박4일간의 생활! 여러 종친님들의 유익하고 열정이 넘친 강의, 처음 보는데도 웬지 처음이 아닌듯한 오빠, 언니, 동생들과의 허물없이 보낸 즐겁고 멋진 날들, 우리 13기를 위해 힘써 주신 종친회 임원님들, 그리고 모르게 음으로 도와주신 총 할아버지...

사실 나는 중앙종친회에서 하계 교양강좌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께서도 참가하라고 하셨지만 나 또한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참가해서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 아니 나의 조상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었다. 나이만 들었지 내가 무슨파이고 몇대손이고 시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 알리고 하면 책찾고 족보 보면서 알 수 있었겠지만 우선은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손도 댈 수가 없었다. 이번 기회는 총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지 모르겠다. 씨족에 대해서 모르고 살 수 있었지만 말이다. 이 기회로 난 다시 태어난 듯 하다. 순김총 할아버지의 자랑스런 자손으로서...

동원재 재실에 도착해서는 웬지 엄격하고 3박4일간 고생만 하겠구나 생각했다. 지내고 난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곧바로 총 할아버지가 계신 영당과 묘소에 가서 절을 했는데 묘역이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다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눈으로 봐도 훌륭했다. 시야가 탁 트이고 웬지 신성한 기운이 13기 우리들을 보면서 뿌듯해 하시는 총 할아버지의 미소가 느껴지는 듯했다.

이튿날 오전/오후 강좌로 8시간 남짓 강의를 경청했다. 옛 서당에서 공부하듯이 앉아서 종친님들의 여러 분야의 강의를 들었다. 엉덩이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가장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와 여러 종친님들께서 족보에서 우리 이름을 찾아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강의였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내 이름을 찾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족보에 내 이름자가 새겨져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신기한 일이다. 다음 강좌 때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수련생 한명한명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한다.

셋째날 아침엔 기공제조로 하루를 시작했다. 보기도 심상치 않은데 직접 해보니까 너무 어려웠다. 동작 자체가 예술이다. 오전 강의 듣고 시간에 쫓겨가며 한화종합화학 여천공장(규모가 어마어마 했다)을 견학하고 해남에 있는 방춘서원에 가서 제를 올렸는데 이곳이 순천김씨의 집성촌이란다. 그곳에 '방춘서원묘종도'라고 순천김씨 5개파(양정공, 절재공, 복저공, 남은공, 진사공)의 시조님들의 업적을 기리는 비었다.

마지막 밤 종친님들과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조별 장기자랑에서 우리 5조가 1등을 했다. 우리 조원들에게 정말 고마웠다.

3박4일간 내가 알지못한 뿌리에 대해 모든걸 조금은 알고 간다. 번덕스런 날씨가 옥의 티였다. 이제 내가 순천김씨인 것이 자랑스럽고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우리 13기를 위해 힘써 주신 중앙종친회 임원님들, 종친님들께 감사드리고 13기 수련생 모두가 너무도 사랑스럽다.



양정공의 19대손 김 수 진

대학을 입학한 후 처음 갖는 여름방학 그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임마의 권유에 의해 순천김씨 대학생 하계 교양강좌에 참석하게 되었다. 순천김이란 인구가 적은 성씨. 그래서 학교생활도중 한 번도 만나본적 없었기에 같은 종씨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들이 조금씩 설렘으로 느껴졌다. 순천으로 향하기전 지속, 미경 언니, 윤석오빠, 정락오빠, 진희언니, 민성을 영등포에서 만나 기차를 이용해 순천에 도착했다. 순천역에서 창춘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창춘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처음 뵈는 한 종친님의 친절로 동원재까지 편히 갈 수가 있었다. 처음보는 우리를 위해 같은 순천김이라는 이유만으로 봉사해주시는 그분의 고마움에 어딘지 모르는 혈연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동원재에 도착하니 낯설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종친회에서 준비해주신 티셔츠를 받고 입소식을 치룬 후 할아버지의 영정과 산소에 배례를 올린 후 하루 일과를 저녁식사와 함께 마쳤다. 2시간을 통해 처음 그 낯선 사람들과 조금은 친해질 수가 있었다.

둘째날 강의를 듣는 것으로 주가된 날이었다. 우리 순천김가의 뿌리의 근원이신 총 할아버지의 이야기. 절재 할아버지 이야기, 족보보는 법, 풍수지리로 보는 총 할아버지의 묘자리, 그리고 관혼상제의 예법까지의 설명을 들으며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날 보면서 스스로 대견했다. 김목사님의 관혼상제에 관한 예법 강의가 6시에 끝나고 저녁을 먹은 우리는 성능 좋은 노래방기계 연주에 맞추어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셋째날을 준비했다.

기상하자마자 기체조로 총 할아버지의 기를 조금이나마 받은 듯 했다. 아침 강의가 있는 후 한화여수화학공장과 해남의 방춘서원이 있는 집성촌 방정리에 방

문했다. 한화 홍보비디오를 보면서 소금에서 시작되는 각종 기술 집결체의 생산품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장의 규모나 복지시설에 다시한번 감탄해야 했다.

한화측의 점심 대접을 받고 한화측의 배려로 방춘리를 편히 갈 수가 있었다. 절재공, 복저공, 양정공, 남은공, 진사공의 제를 모시는 서원에 가서 예를 올린 후 서원식구들이 주시는 과일과 음료수에 소박하지만 그 어떤 화려함보다 멋진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 주암댐을 보면서 인공적 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동원재에 준비된 불고기 파티는 우리가 남이 아닌 한식구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동원재의 마지막 밤이었다.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우리는 마지막 날 오전 수업에서 계속 꾸벅꾸벅 방아질을 하는 민망함도 보이긴 했지만 우리에게 귀한 밑줄을 해주시려는 종친님들께 감사함과 죄송함 모두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오후 강의후 짐식을 먹은 우리는 수료증과 함께 조상에 대한 자부심과 순천김씨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순천을 떠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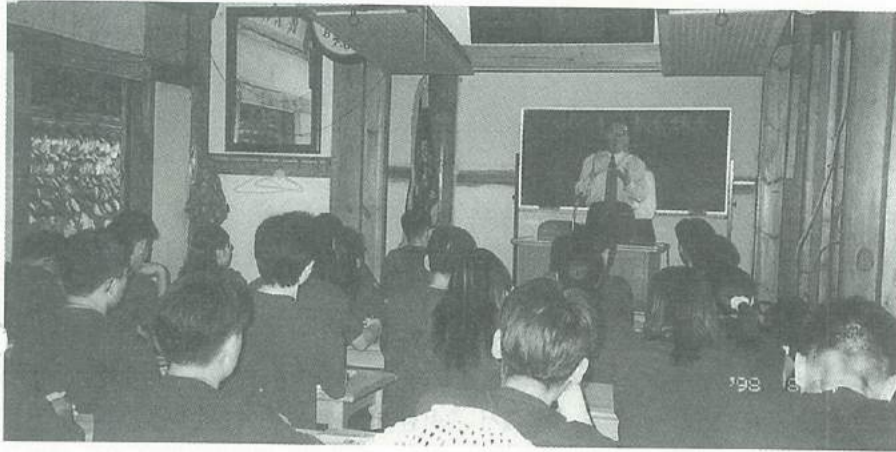
어서공의 19대손 김 현 민

순천김씨 종친회에서 교양강좌를 한다고 해서 장난반 호기심반으로 교양강좌에 오기로 결정을 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다. 종친 어르신들은 어떤 분일까. 어떤 친구들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도착한 전남 승주군 창천에 위치한 목적지에 들어섰다. 그때 보이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모습, 역시 한 핏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원재 재실에서 한 교육강좌이며 우리 시조 영당사 진이며 뒷산의 김총 할아버지의 묘이며 정말 순천김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교육강사님의 말씀중에서 우리 시조이신 김총 할아버지의 영당이 있는데 복사품이라는 것이다. 순천김씨에 순천김씨의 시조 사진이 복사품이라는 것은...

둘째날에는 한화공장을 둘러보고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에 소재한 방춘서원에 갔습니다. 방춘서원이라는 것은 조상들이신 양정공과 절재공, 복저공, 남은공, 진사공의 묘소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나도 해남에 사는데 이런 가까운 곳도 와 보지 못하고 마음조차 시큰둥하게 지내려 했는데... 우리 시조이신 김총 할아버지의 영당을 뵈기가 죄송합니다.

셋째날 저녁에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캠프파이어를 하였다.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 누나, 형, 동생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하기도 했고 3박4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순천김씨 즉 나의 씨족을 알게 되어 아주 유익했고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관서공의 20대손 김 강 석

공허하게 지내던 이번 여름방학...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난생처음 나의 본관인 순천을 방문한 것이다. 순천에 오는 길은 매우 멀고 기나긴 여정에 피로하기도 했지만 그곳에 처음 가본다는 설레임 때문에 무려 10시간의 기나긴 여정도 짧게 느껴졌다.

7시쯤에 동원재에 도착한 나는 이번 교양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이곳에 발을 들여 놓았다. 첫날은 모두의 짧은 자기 소개를 들으면서 하루가 지나갔다.

두번째 날은 종친님들의 강좌로 하루를 보냈다. 그 강좌중 김동준님의 어눌한 풍수지리에 관한 강좌를 듣고 마음속으로 한가지 다짐을 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세번째 날은 여수 한화 화학공장과 해남 방춘서원을 방문하였다. 한화공장을 견학한 후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해남에 있는 방춘서원에 가서 조상님들께 잠시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나서 동원재로 돌아와서 정말로 재미있는 노래방과 캠프파이어-바베큐파티를 했다. 그후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그동안 조금 서먹했던 관계도 친밀하게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돈독히 하였다. 이번 교양강좌에서 가장 큰 수확은 종친들과의 친분이었고 그들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형성공의 17대손 김 동 운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도약의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이때에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뿌리를 찾고 조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곳 전라남도 승주군 주암면 창촌리 동원재에 오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처음 찾은 동원재나 시조묘소 등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깨끗하고 잘 정리정돈된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는 것 같았으며 그 이유에선지 그 옛날 김충 할아버님은 물론 여러 선친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되었다.

둘째날부터 시작된 여러 강좌로 인해 족보를 보고 찾는 법은 물론 여러 다양한 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여러 선친들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업적들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순천김씨 가문이 역사의 왜곡으로 인해 힘든 역경에서 살아남은 훌륭한 가문이며 빼대있는 양반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다시 한 번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여러 종친님들의 열변을 다하는 강의들은 나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해주었으며 여러 선친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쉽지만 깨닫기 힘든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현재 순천김씨 가문은 중앙총친회는 물론 여러 종친님들이 순천김씨의 역사적 새 조명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노력과 정열을 이어받아 우리 세대에서는 꼭 순천김씨 가문이 더더욱 단결하고 화합하여 누가 뭐라해도 최고의 명문 가문임을 우리가 알고 다른 이들이 부러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희 13기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여러 종친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은공의 17대손 김 민 성

3박4일의 일정을 촛살같이 보낸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남에 앞서 동원재를 둘러보고 있다. 둘러보는 내 가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살며시 번지는 훈훈함으로 채워져 있다.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무엇일까? 또한 무엇을 느꼈는가? 처음 수련회에 참가 신청서를 낼 때 한참을 망설이던 내가 생각한다.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과연 '가문'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해서 또한 양반과 상민 즉 족벌을 운운하며 얼굴도 모르는 1500년 위에 선조를 찾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내 생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바로 이곳 동원재에서 짧지만 긴 3박4일의 일정동안 소중한 무엇인가를 느끼고 배웠기 때문이다.

첫날 김충 할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했을 때 멀찍이서 있던 기독교 신자인 김지혜 누나가 생각한다. 그것을 보고 나는 집안 어른들이 버럭 화를 낼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을 보시고는 한 어른신께서 성화를 내시기는 커녕 나이 어린 조카벌의 지혜누나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참 놀랐다.

가문을 중요시하고 모시는 어른신들은 조금은 고집스럽고 남의 생각을 잘 인정해 주지 않을 결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잘못됐었다. 첫날의 그 일 말고도 우리를 먼저 존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어른들을 보며 절로 내자신이 숙연해지며 겸손해지는 걸 느꼈다.

'은코지신'이란 말이 있다. 옛것을 갈고 닦아 세것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문화적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앞에 자결하신 선조분들이 존재했기에 35년에 수난에도 나라와 문화를 지킬 수 있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내 가족과 나만을 아는 사회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으며 내가 모른척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내 핏줄 내 친척임을 아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전통이 극단적으로 향할 때 우월주의와 배타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잘 가꾸어지고 조화된 아름다운 전통을 배웠다. 이런 뜻깊은 수련회가 비록 나에게 이제 끝나가지만 내 아들 손자가 다시 이어나갈 것을 나는 믿는다.



전서공의 22대손 김 형 준

6시간의 여정을 통해 나는 나의 본고향을 찾았다. 순천시내에서도 깊숙히 들어가서야 그 모습을 드러낸 동원재.

순천김씨라는 핏줄로 태어나 그동안 나의 뿌리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에게 이번 교양강좌는 나의 뿌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 나는 내가 무슨과, 몇대손인지도 모르는 씨족에 대해 관심도 애정도 결여되었던 상태였다. 그러나 3박4일의 교양강좌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얻은 확실한 것들이 있다. 시조에 대해 들은 강의, 직접 관람한 영당, 지리학적으로 그야말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시조 묘역 등은 나에게 순김은 어디가나 뗏뗏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또 내가 이곳에 오기전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내가 "나는 나의 본질을 찾으러 간다"는 말에 나의 친구들은 모두 부러움을 토해냈다. 각기 다른 성을 갖은 6명의 친구들은 씨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순천김씨 종친들의 자기 씨족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은 그 어느 씨족들보다도 열성적이었다. 앞에서 저희를 깨우치시려는 어르신네들과 뒤에서 조상의 얼을 받은 저희 순천김씨 젊은이들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있다면 순천김씨는 더욱 더 빛날 씨족이 되리라 확신한다.



양정공의 19대손 김 은 경

종보를 받아보신 아버지가 8월13일 ~17일까지 대학생 교양강좌 수강생 모집 기사를 보시고는 한 번 가보지

않겠냐는 말씀에 이번 여름에 특별히 할 일도 없겠고 마땅히 갈 곳도 없고해서 가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나 혼자 순천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난 같은 순천김씨라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혼자 간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다. 지도상으로 본 순천은 광주에서 멀어보이지 않았는데 모집장소인 창촌까지는 실제 내려가보니 광주에서도 한참이 걸리는 곳이었다. 너무 느긋하게 생각했는지 5시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동원재에 도착했을 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들의 어서오라고 반갑게 맞아주셨고 난 낯선곳 낯선 얼굴들을 살펴보았다. 처음의 그 어색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졌다. 도착하자마자 입소식을 하고 영당에서 절을 하고 뒷산으로 올라가 김충 할아버지의 묘소도 둘러보고 절을 하고 내려왔다. 올라가서 본 묘 앞의 경치가 괜찮았다. 첫날은 그렇게 일정을 끝내고 이곳에 온 순천김씨 새로운 친척들과 인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다.

둘째날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부러 우리를 위해 오신 어른신들의 강의를 들었다. 매일 책상앞에 만 있다가 좌식으로 앉아있으려니 다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는 족보보는 법, 풍수지리와 관련한 김충 할아버지의 묘자리, 관혼상제 등등.

셋째날은 아침 일찍부터 기체조를 시작하여 한화공장, 해남의 방춘서원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밤에 마당에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어슬픈 장기자랑도 했다.

있는 동안 비가 계속 올까 걱정했는데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무엇보다 식사나 간식거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 감사했다. 내가 참여한 행사가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예감이 든다.

# 第13回 大學生 教養講座 受講生 感想文



횡성공의 17대손 김 윤 석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라남도 순천 땅을 밟았다. 사람들에게 순천김씨라고 항상 말해왔지만 태어난지 27년만에 비로서 '총' 할아버지가 계신 동원재에 오게 되었다. 대학생을 위한 교양강좌가 있다는 것은 아버님을 통해서 알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이 선택해서 오게 된 것인데 3박4일 일정동안 적지않은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에는 저마다 양반이라고 하는 문중이 많이 있으나 순천김씨처럼 대학생에게 가문의 역사와 예절을 가르친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으며, 내가 문중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놀라면서 요즘시대에 이런 행사를 시행하는 순천김씨 가문은 보기드문 명문가로 생각했다.

비록 동원재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으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중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강의 를 통해 역사상의 위대한 선조 어르신과 사제 등 예절에 관해 예전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을 더욱 자세하게 알고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나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듯하다.

13기 학생중 나이가 좀 많다는 이유로 학생대표를 맡았다. 처음에는 좀 망설였지만 교양강좌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이번 13기 교양강좌는 28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예년보다 많은 수의 학생이라해서 더욱 뜻깊은 행사이다.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렇듯 젊은 학생들이 뿌리를 찾으려 모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희망적인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교양강좌 마지막날인 오늘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은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강사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능력있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뭉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순천김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칠 때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순천김씨 여러분! 한 마음으로 뭉칩시다.



양정공의 17대손 김 진 희

부모님의 권유로 교양강좌에 참가하기 전부터 문중에서 왜 이런 행사를 개최할까? 라는 의문을 가졌다. 나름대로의 생각은-참가하기 전의 생각이기에 솔직히 말하자면 순천김씨라는 드문 본관에 대한 어르신들의 괜한 자만심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족이기주의나 한국사회 특유의 혈연중심의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진 않았다.

그러나 3박4일의 교양강좌가 끝나고 오늘 다시금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만만치 않을 비용과 중년 어르신들의 노력이 담겨있는 이런 강좌가 단지 본관에 대한 자만심만으로 계속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

을 하게 된다.

문중의 어르신들이 20세가 갓 넘거나 그보다 조금 많은 우리들에게 이 강좌를 통해 결국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자신의 뿌리를 찾고 조상의 행적과 업적을 돌아보고 가족과 혈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과정속에서 결국 저희들에게 바라신 것은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똑바로 훌륭하게 살아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힘을 저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다고 느낀다. 단지 혈연을 확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이 강좌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이 강좌를 통해 배운 것들이 무척 힘이 될거라 생각한다. 곳곳이 충을 지키시다 돌아가신 절재공 할아버지를 비롯한 훌륭하신 할아버지들의 삶이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거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동원재에서의 3박4일동안 저희를 보살피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행동거



지가 다 어른스럽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았을텐데 이해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도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고, 분명 3박4일의 이 교양강좌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나의 생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좀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



절재공의 20대손 김 지 혜

이곳 동원재에 처음 들렀던 때는 작년 이맘때. 작은 아버지를 따라 무심코 이 먼 곳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어색함으로 혹은 조금은 귀찮은 마음으로 둘러봤던 시조 영당과 시조묘의 모습이 너무도 평화롭고 여유로와 이번 13기 대학생 교양강좌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조상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과 애정을 쌓음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찾는 데 기본 토대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서 강의를 해주신 여러 종친님들의 열정에 대한 자부심은 나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었고 그 분들의 해박한 지식 또한 전통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15일

에 있었던 한화공장, 방촌서원, 주암댐 관광은 조금은 지루했던 강의의 연속선에서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뻐던 것은 종친이라는 틀안에 포인 많은 이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평소 주변에서 순천김씨를 만나 볼 수 없었을뿐더러 순천김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기에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많은 나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또 반갑기도 했다. 이곳에서 만난 언니들 오빠들 그리고 동생들 아무런 거리낌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앞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여러 종친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하나하나를 맘속으로 느낄 수 있었다. 3박4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이곳에 있기 위해 많은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얻은 것들과 맞바꾼다해도 아까울 것이 없다.



횡성공의 19대손 김 탁 근

어느날 아버지로부터 순천김씨 대학생 하계 교양강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까지 난 조상이나 가문에 관해 솔직히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께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가려 했지만 아버지의 반강제력으로 그리 좋지않은 기분으로 참가했다.

처음에 순천 동원재실에 도착해서 30여명의 친족들을 보게 되었을 때 반가운 마음은 커녕 그냥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타인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3박4일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저녁무렵에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부터 내 생각은 달라졌다. 내가 소개할 때 무슨과, 몇대손인지도 확실치 못했을 때에는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서야 난 이 기회에 우리 조상에 관해 그리고 나에 관해 열심히 배워서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다음날 오전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들었다. 우리 종친 어르신들께서 직접 해주시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순천김씨 가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고 우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 느꼈을 때 비로서 내가 자랑스런 순천김씨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에 어떤 뿌듯함과 소속감 같은 걸 느꼈다.

여러 친족들과 몇일간 같이 지내면서 정도 많이 듣고해서 마지막날 밤에는 무척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기서 많은 걸 배웠다. 이제는 그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순천김씨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것 같다.

이런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해주신 종친 어르신들과 나에게 친형제같이 대해 주신 친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순천김씨 중 한사람으로써 긍지를 가지고 가문을 빛내며 여기서 어르신들께 배운 것을 꼭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忠義列傳 ④

## 節齋 金宗瑞

다음 3월 30일에 세종은 의정부에 전지하여 화포(火砲) 제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태종이래 그 제조술의 괄목할만한 발전상을 비교 설명하는데 천자포(天字砲)의 경우 전에는 불과 4백~5백보 나가던 것이 지금은 화약을 조금 쓰는데도 1천3백여보나 나가며 지자포(地字砲)의 경우 불과 5백보 나가던 것이 지금은 같은 양의 화약을 쓰는데도 8백보나 나가며 황자포(黃字砲) 역시 그렇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지금 재위 28년 사이에 화포에 유의하여 누누이 강구(講究)하여 많이 제도를 바꾸었었는데 제신들은 매년 그 제도의 좋음을 일컬었었다. 오늘의 제도로 보건대 전의 화포는 모두 쓸데없이 되었으니 곧 마땅히 허물어 버려야 하겠다. 전에는 이 새 제도를 모르고 그때 만든 것으로 가장 좋다고 하였었는데 이제 이에 그것이 가소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뒷날 오늘 보는 것이 오늘 전날을 보는 것과 같을까 무섭구나』

이렇게 화포 제조술을 급진적으로 발전시켜 국방력을 튼튼히 다져 놓으면서 세종은 한편으로 고급의 역사에서 정치에 참고될만한 사항들을 뽑아내어 「치평요람(治平要覽)」 1백50권을 편찬해 내게 하는데, 이날 3월 30일에 왕명을 받고 이의 편찬을 주도해온 수양대군과 정인지 등은 책을 완성하여 세종께 바친다. 이런 일들에 김종서가 모두 참여하였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4월 3일에는 그동안 수릉으로 잡아놓은 현릉서쪽 언덕에 대해 명당(明堂) 여부로 논란이 많았으므로 이를 최종 심의하여 수릉으로 확정지를 지를 결론 짓기 위해 세종은 김종서 등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다.

이에 김종서는 이선로 등 지리학에 능통한 관료들을 대동하고 가서 주변 지세를 세세히 실측하고 역대 지리서의 기술 내용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수릉 자리로 손색이 없음을 아뢴다. 이에 세종은 현릉서쪽 언덕을 수릉으로 확정짓는다.

그런데 다음날인 4월 4일에는 의정부 우찬성 권제(權禮, 1387~1445)와 우참찬 정인지, 공조참판 안지(安止, 1377~1464) 등이 조선의 개국 과정을 노래와 시로 엮어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0권의 편찬이 끝나 이를 세종께 바친다. 세종이 만 3년전인 24년(1442) 3월 1일에 편찬을 명했었던 책이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이로써 처음 우리말 노래를 지어 써낸 것이니 세종의 감회가 어떠하였었겠는가.

그러나 세종은 자신의 치적이 아무리 빛나는 결실을 맺는다 해도 이제는 앞서 보낸 두 아드님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억장이 무너질 뿐이었다. 그래서 평원대군의 장례까지 다마치고 나자 장모인 내부인 안씨와 두 대군의 친도를 위해 관악산 청계사(淸溪寺)에서 송경법회(誦經法會)를 열어준다. 세종의 뜻이기도 했겠지만 친정 어머니와 두 아드님을 차례로 여의고 녀이 나가 있던 왕비 소헌(昭憲) 왕후 청송(靑松) 심씨(沈氏, 1395~1446)의 간절한 소망에 따른 것이었으리라.

그러자 또 사헌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소한다. 『지금 내부인 안씨와 평평·평원 양 대군을 위해 청계사에서 송경한다 하는데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기도 하나 백성들이 본받을까 두려워니 피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대해 세종은 『내가 여러번 큰 환란을 겪었는데 이런 작은 일을 베푸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해 버린다. 사헌부에서도 그간의 사정을 아는지라 더이상 세종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이는 모두 김종서가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주밀하게 주선하고 무마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두 아드님의 친도법회까지 마치고 나자 세종은 4월 28일 김종서와 좌의정 신개, 우의정 하연 등이 문안 온 자리에서 세자에게 선위할 뜻을 다시 비친다. 그러자 김종서 등이 또 한사코 이 뜻을 받들 수 없다고 간청하여 이를 일단 유보한다.

그러나 5월 1일 세종은 영의정 황희, 우의정 하연, 예조판서 김종서, 좌참찬 정인지 등을 불러들인 다음 수양대군과 도승지 이승손에게 명하여 이런 전지를 전하게 한다. 『절대 내가 세자에게 선위하고 한가롭게 지내면서 병을 다스리려 하였더니 경 등이 올면서 청해 마지않기로 억지로 따랐으나, 그러나 되풀이해 생각하니 번거롭게 자질구레한 여러 일들을 한결같이 모두 친히 처단한다면 반드시 다른 병이 생겨날 터이러나 몹시 걱정스럽다. 이제 군대와 나라를 다스리는 중대한 일 이외의 일체 서무는 세자로 하여금 대신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황희와 김종서 등이 『이는 비록 선위하는 일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정사가 두 곳에서 나오면 후세에 무엇이라 하겠습니까』하고 이 자체도 반대한다.

그러자 세종은 다음과 같이 처량한 말을 하여 신하들의 입을 막아 놓는다. 『경들은 내 병을 알지 못하고 이처럼 굳게 청하나 근래에 더욱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약해지니 만약 약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서무를 친결한다면 반드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에 한가롭게 거처하면서 양생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1,2년 연장해서 세상에 있을 수 있다면 어찌 다행이라 하지 않겠느냐. 무릇 새로 세우는 법 조항 및 사람 쓰는 것과 병권에 관한 것 등 큰 일은 내가 다스리고 그 나머지 서무는 세자로 하여금 대신 다스리게 하겠다. 이는 내가 급급히 몸을 보호하려는 뜻이다. 경들은 어찌 내 병을 생각지 않고 억지소리만 하는가』 이로써 왕세자(뒷날 文宗)의 서정대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세종은 즉위이래 영토확장을 항상 염원해왔으므로 국경 근처에서 정령(政令)이 미치지 않는 새 땅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었다. 그래서 신천지를 발견하였다는 허위보고도 많이 받았었는데 마침 이때 함흥사람 박정(朴丁)이란 자가 갑산군 증강 근처에서 매를 잡다가 길을 잃고 한 지경에 들어갔더니 별천지와 같았었다는 보고를 해왔다.

이제 세종은 지리학에 능통한 예조좌랑 이선로를 보내어 이 신천지를 확인하고 우리 국토로 확정지으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그동안 하도 허위 보고가 많았

었기 때문에 우선 이 지역을 오래 다스려서 그 사정을 잘 아는 김종서와 황보인을 불러 어찌했으면 좋을지를 묻는다. 김종서와 황보인도 확인할 수 없다고 아뢰며 우선 선발대를 먼저 보내어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세종은 7월 2일에 이선로로 하여금 경군(京軍) 25인을 거느리고 평안도로 가서 그곳 군사 수백명을 이끌고 함께 가서 찾되 만약 찾다면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잘 회유하여 귀순하게 하고 그 수장을 데리고 오라고 명한다.

그러나 9월 22일에 평안·함길 양도 경차관(敬差官)의 직함을 띠고 신천지를 찾아나섰던 이선로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번도 역시 박정이 큰 상을 바라고 거짓으로 아뢰는 것이라 한다. 실망한 세종은 박정을 국가기망의 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승지 박이창(朴以昌, ?~1451)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을 병조에서 처리하라고 넘긴다. 그런데 이날 세종은 귀화왜인인 등구랑(藤九郎)에게 명하여 왜선을 만들게 하고 마포강에서 그 왜선을 상대로 우리 배가 화포로 공격하는 수상전투 훈련을 하게 하는데 이때 의정부와 육조 제신으로 하여금 이를 관전케 하였으나 김종서는 8월 7일에 경상·전라·충청도의 목장 실태를 돌아보기 위해 왕명을 받들고 삼남의 목장 실태를 순심(巡審)하고 돌아온 김종서는 10월 9일 세종과 왕세자에게 그 실태를 이렇게 보고한다.

충청도 홍주(洪州)의 흥양(興陽) 목장이 물과 풀이 넉넉하여 목장으로 하자가 없고 서산 도비산(都飛山) 목장은 물과 풀이 부족하므로 폐지하였으며 태안에 지령산(知靈山), 대소산(大小山), 이산곶(利山串) 목장이외에 독진곶(秃津串), 신곶(薪串) 목장을 증설하였고, 전라도에는 함평 해제(海際)의 용암(翁岩), 성포(城浦) 두 곳에 목장을 설치하였으며, 압해도(押海島)와 진도(珍島)의 풍토가 모두 제주도와 비슷하여 목장을 만들기에 적합하고, 영암 황원곶(黃原串)도 목장하기에 알맞으며, 경상도는 거제도 목장에 적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간 순심하면서 보고 들은 일들을 자세히 아뢰니, 이에 세지는 10월 18일에 도승지 유의손(柳義孫, 1398~1456)을 불러 세종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근일 판서 김종서가 말하기를 민간에 일이 많다 하니 이제 관원을 여러 도에 보내서 백성의 질고(疾苦)를 물으려 한다. 그러나 부민(部民)의 고소법은 행할 수 없다. 중서가 또 말하기를 역리(驛吏)의 조잔(凋殘)함이 크게 심하다 하고 감사가 순행(巡行)하는데 역의 말이 거의 50필에 이른다 하니 이제 그 수를 정하여 10필을 넘지 않게 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김종서가 삼남의 목장을 살펴보면서 마필의 부족현상을 목도하고 또 각 역에 배치된 마필이 감사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한 것을 파악하여 보고함으로써 이런 시정책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 中央宗親會를 訪問하신 분

(1998年 6月 21日~9月 20日)

本 中央宗親會 宗報編輯室을 수시로 찾아오셔서 從事者를 慰勞하시고 激勵하여 주신 宗親 여러분과 來賓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宗報編輯室>

김수연(5회)	김동신	김영식	김석현
김형민(3회)	김성일	김규연	김수정
김동수(3회)	김동원	김유환	김한복
김영배(2회)	김동준	김용수	김완정
김명환(2회)	김태연	김중수	김인섭
김윤석(2회)	김석균	김창원	김상용
김상대(2회)	김일정	김보연	김문환
김명수(2회)	김병화	김문재	김도연
김동철(2회)	김부원	김철희	김광재
김문섭	김윤희	김근희	김동균
김정현	김동옥	김영희	
김중현	김한수	김동호	

#### ■ 功勞牌 授與 ■

中央宗親會 顧問	金斗喜 (1998. 5. 10字)
	(大邱廣域)
副會長	金東吾 (1998. 6. 14字)
	(慶北開慶)
運營委員	金東洙 (1998. 8. 16字)
	(全南順天)

#### ■ 人 事 ■

金英熙(大邱廣域市)	副會長에 任함 (1998. 8. 1字)
金安千(光州廣域市)	理事에 任함 (1998. 4. 1字)
金樂貞(京畿果川市)	理事에 任함 (1998. 4. 1字)
金富源(서울奉天洞)	理事에 任함 (1998. 8. 1字)
金有煥(忠南扶餘)	代議員에 任함 (1998. 9. 15字)

### ✽ 13기 대학생 교양강좌 행사 협찬 내역 ✽

13기 대학생 교양강좌 행사 중 물심양면으로 많은 종친들이 직접 동원재를 찾아주시어 협조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협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찬조금 내역

광주지역종친회회장	김창원	100,000
시조묘역수호관리위원장	김두원	200,000
중앙종친회운영위원	김정일	100,000
해남진사공파	김봉빈	100,000
지평공파회장	김철준	200,000
중앙종친회고문변호사	김형민	200,000
덕성여대교수	김호재	50,000
동원재유사	김춘희	50,000
	김유환	100,000

#### ■ 찬조물품 내역

부산종친회장	김보연	음료수	2상자
	김정일	과일	3상자
	김봉빈	과일주스	3상자
	김동수	과일	1상자
		불고기판	2셋트
	김유환	플라로이드사진기	1점

## 永登浦漢方病院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指定病院>

### 理 事 長 金 喆 俊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永登浦洞 4가 153-1

電 話 : 678-8225, 0848, 8889

-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副會長
- 持平公派宗會 會長
- 永登浦漢方病院 理事長
- 法務部更生保護會 名譽會長



任員 年會費 收納 現況表

(1998. 6. 21~1998. 9. 20)

Table with 6 columns: Role (고문, 부회장, 운영위원, 이사), Name, Amount. Lists members and their annual dues.

任員 年會費 收納 案内

中央宗親會는 任員 여러분이 納付하시는 年會費와 世帶當 年會費 그리고 篤志宗親의 贊助金으로 運營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每期마다 거르지 않고 정성껏 納付하신 會員님과 篤志宗親의 贊助金에 대하여 뜨거운 感謝를 드립니다.

이번 第10期(98. 4. 1~99. 3. 31)에 納付하셔야 할 任員 年會費는 第9期 定期總會에서 다음과 같이 策定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參考 하시기 바랍니다.

會費 納付額

Table showing fee categories and amounts: 會長 (200萬원), 副會長 (50萬원), 運營委員 (20萬원), etc.

온라인 구좌

- 농협 069-02-01-212885
한일은행 146-003175-02-501
우체국 012351-0134884
지로번호 7637405

※ 위의 온라인구좌 또는 지로로 납부하신 후 그 내용을 전화로 연락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幹事長>

原稿 寄稿 要望

順天金氏 宗報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宗親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 1. 祖上님에 대한 行績과 思想 및 考證資料에 관한 건
2. 各 宗派 및 宗會의 現況 및 活動現況
3. 宗員의 敎養을 위한 內容
4. 모든 宗員의 專門分野別 參考할만한 글
5. 孝行, 善行等 우리 문중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6. 그밖의 詩·隨筆·紀行文

위와 같은 內容의 投稿를 보내주시면 宗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世帶當 年會費 受納 宗親名單

(1998. 6. 21~1998. 9. 20)

Large table listing names of members who have paid their dues, organized in columns.

# 金相權 宗親 서울시 副教育監에



南隱公의 16代孫이며 中央宗親會 運營委員인 金相權 宗親은 지난 7월 8日 政府 人事發令으로 職業公務員으로 最高頂上인 一級으로 昇進하여 서울市 副教育監에 任命됐다.

이번 人事가 發表되되 훨씬 前부터 많은 親知同僚들의 期待와 關心이 모아진 가운데서

서울市 教育을 總括할 重要한 자인데도 不拘하고 4個月餘間 空白을 두고 있다가 人事가 確定 發表되자 正작 本人보다는 周圍에서 한결같이 歡迎의 소리가 높았던게 그간의 事情, 이는 33年間의 公職生活에 現場教育經驗 爲主의 有能한 實務型 人士인데다가 平素 謙虛하고 誠實한 對人關係로 周圍의 信望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말해 준다.

宗親은 光州西中, 光州師範, 國際大學, 高大教育大學院 出身으로 일찌기 鄉里인 光州等地에서 敎鞭生活을 하다가 65年 뜻한 바 있어 五級公採에 應試 合格과 同時에 教育家 族이 된 以來 75年 教育部 監査擔當官, 企劃豫算擔當官, 敎員養成課長, 全南大·群山大 事務局長, 教育部公報官, 大學 教育政策官, 京畿道副教育監, 國際教育振興院長을 차례로 거쳐 서울市 副教育監이 됐다.

宗親은 透徹한 國家觀과 清廉剛直한 公職觀을 가지고 일 對 對한 執念과 推進力 그리고 必기드문 統率力과 行政能力을 發揮, 일찍부터 一級 階級으로 晉했다. 앞으로 서울市民과 함께 首都教育 發展에 큰 期待를 걸어본다.

43年 全南 海南郡 溪谷面 方春里産, 서울 松坡區 文井洞 韋 밀리아파트 221棟 701號에 살고 있으며, 梁明子 夫人과의 사이에 1男1女를 두고 있다.

# 朝鮮

## 「王과妃」

中央宗親會에서는 K B S 1TV에서 現在 放映하고 있는 作家 정하연씨 가 쓴 史劇 「王과妃」에서 節齋(宗瑞)公의 劇中配役을 野望에찬 人物로 그리려 하였으나 中央宗親會의 거센 항의를 받고 다소 부드러운 役으로 代替한 바 있다. 앞으로 그 어떤 放送에서도 우리 門中 先祖들의 功績에 흠이 가 는 放映은 絕對的으로 神 經을 써서 바로잡아 나아 가야 할 것이다.

西紀 1998年 9月 18日 金曜日 (禮紀 4331年 陰 7月 28日) (日刊)

## 「왕과 비」 계유정란으로 도약노려

시청률 부진으로 질치부심 해온 KBS 1TV 「왕과 비」가 수양대군이 주도한 쿠데타, 계유정란의 묘사를 계기로 도약을 노린다. 26, 27일 방영될 수양대군(임동진)측의 김종서(조경환) 살해 장면<사진>이 극 클라이막스다. 김종서는 자신의 집 안채 마당에서 수양대군이 보내온 편지를 달빛에 비쳐 보려고 몸을 돌리다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돌아본다. 이때 수양대군의 침지기 임운(전인택)이 품속에 숨겨 놓은 첩보로 김종서 정수리를 공격한다. 피를 흘리면서도 눈물을 부릅뜨고 쫓겨가서 노려보는 김종서. 그러나 임운은 재차 첩보를 휘두른다. 당초 극본에는 부상당한 김종서를 집사 윤광은 역 조제훈이 업고 도망가는 것으로



26-27일 김종서 살해장면이 절정 제작진, 제2 '용의눈물 인기' 기대

장면을 위해 대여섯 차례 NG가 났다는 후문. 조경환은 「작가의 역사 재해석에 따라 김종서를 야망에 찬 인물로 그리려 했으나, 김씨 문중 항의로 다소 부드러운 인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수양 역 임동진은 「몇년 전 드라마 「한명회」에서 김종서 역을 맡은 적이 있어 기분이 묘하다」고 했다. 「왕과 비」 제작진은 전작인 「용의눈물」 역시 극초반 10%대 시청률로 고전하다, 방원측의 정도전 살해 장면 방영편부터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것을 떠올리며, 앞으로 전개될 수양대군 시대가 보다 많은 시청자를 흡인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KBS측은 「계유정란 묘사에 있어, 수양대군의 전인합보다는 그의 심리상태와 인간적 고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聖聖닷컴기자> shjin@chosun.com

## 理事會議

98年 8月 11日 中央宗親會 會議室에서 총 25名의 理事님들이 參席하신 가운데 中央宗親會 第九期 定期總會에서 學論되었던 宗事中 優先的으로 先決處理해야 할 附議案件으로.

- 1, 大同譜 編纂委員會 構成
- 2, 中央宗親會 定期總會 日 字 變更의 件
- 3, 先祖配享日 또는 時享日 調整의 件
- 4, 宗旗統一化
- 5, 其他事項 等を 隔意없이 討議, 會議을 進行한바, 1項에 對하여는 지난 甲子 譜를 비롯하여 鐵原公, 節齋公 派 등 派譜에 始祖 德平 陽君에 對한 좀더 正確한 根源을 밝히지 못한 아쉬움을 補充 收錄하도록 하고 그 무엇보다도 合譜를 目的으로 한 門中의 宿願을 기필코 達成하고자 함에 있음을 參席하신 全 理事님들이 同意함으로써 滿場一致의 可決을 보았으며, 2項에 對하여는 中央과 地域間의 結束과 一絲不亂한 業務의 連續性을 合理化함에 效率的인 面을 고려하여 9/10月中에 系派와 地域宗親會에서의 이루어낸 事項을 中央宗親會 定期總會에서 結論으로 當該年度를 磨勘하도록, 決議하였으며, 3項에 對하여는 現在 施行하고 있는 系派와 宗派에서의 傳來된 慣習을 하루아침에 바로잡기가 尙 當히 어렵다는 衆論에 좀더 宗賢들의 高見을 받아 追後 調律 하기로 미루었으며, 4項에 對하여는 異意없이 原案대로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5項에 對하여는 執行部에서 努力하시어 하루빨리 大同譜가 發刊되도록 準備하여 달라는 간곡한 부탁

## 會長團 會議

과 激勵을 아끼지 않았으며 始終一貫 和氣霽靄한 雰圍氣속에서 10期 第一次 理事會議을 마감하였다.

98年 8月 25日 金鍾植 會長님을 비롯한 서울, 釜山, 大邱, 光州等 全國 地域宗親 代表會長님들이 高루 參席한 가운데 8月 11日 理事會議에서 議決된 附議案件 5個項의 第10會期年度 宗事 全般에 걸쳐 門中發展을 이루어내 고자 하는 會長團 會議의 進行은 자못 진지한 가운데 또한 隔意없는 討論을 한바 그 中 多數의 案件은 肯定的인 結論으로 歸着되었으나 大同譜 編纂의 時期에 對하여 橫城公派 會長으로 계신 英熙 本會 副會長님의 거센 否定的인 發言이 있었으나 이에 對한 金鍾植 議長님의 答辯에서 그간의 中央宗親會에서 多角的인 側面에서 的 調查와 檢討를 提示하면서 現實의 必然性을 強調하신바 全員 滿場一致 合意보았으나, 다만 彈力的인 運營의 妙를 創出하기를 바라면서 會議를 磨勘하였다.

## 運營委員 會議

98年 9月 8日 中央宗親會 創立이래 처음으로 新設된 運營委員 制度에 의거 委囑된 運營委員님들이 多數 參席한 가운데 金鍾植 議長님은 앞으로 中央宗親會의 運營面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活動을 期待하여 마지 않는다는 付託의 말씀과 宗事全般에 걸쳐 協調를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하고 相見禮를 겸한 첫모임의 만남을 가졌다.

# 君子種苗農藥社

흥농종묘(株)  
경기화학(株)  
신농비료(株)

始興·安山 總代理店

## 代表 金景南

電話 (0345) 494-5100  
FAX (0345) 494-5076  
自宅 (0345) 401-5353



中央宗親會 監事  
景德齋 有司  
柯谷公派宗親 總務

□ 激勵辭 □

# 始祖墓域 同源齋에서



여름방학 한때를 이곳 유서 깊은 順天金氏始祖墓域齋室에 모여 氏族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깨우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고 간직하는데 소홀한 傾向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욱 이러한 부분에 無關心하거나 알고 회조차 접하지 못해 자신과 가족의 起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여기에 모인 젊은 宗親 여러분들은 3박 4일이란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의 順天金氏의 淵源과 조상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실로 意味있는 經驗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은 가족의 기원과 우리 家系의 줄기를 좀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며, 조상의 묘역과 제실 현장 등을 踏查함으로써 좁게는 氏族 계를 접하고, 넓게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 新鮮한 층의 기회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의 심지 않습니다.** 우리가 祖上을 모시고, 잘

받들어 나간다는 것과 家庭에서 부모님께 孝道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人間이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人倫이며 道理라는 점도 이 기회를 통해 자세히 배우고 되새겼으면 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씨족과 친족 그리고 血緣을 강조해서 排他的인 感情이나 優越感에 빠져 사회와 국가적인 大義를 저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처럼 조상의 발자취를 더듬어 되새기고, 나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작업은 언제라도 또 누구라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되새겨 오늘을 더욱 새로이 한다는 이 말이 이번 敎養講座의 趣旨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늘에서 특별히 진 사람이 아니라 倍達民族으로서 그 중에 순천김씨 의 피를 물려받아 오늘에 이르러 있다는 歷史的 現實을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접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複雜多難하고 또 尖端科學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더라도 우리는 根本을 잃거나 의면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히 가꾸어야 할 것을 진실히 느끼는게, 오늘의 시대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대학생 宗人 여러분들은 이번 敎養講座를 통해 순천김씨 家門의 傳統과 名譽에 대해 크고 넓게 배워,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서도 순천김씨의 宗親으로서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는 契機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은 사회와 역사 그리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지 만, 이보다 먼저 가문의 영광이요, 공지가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 가슴에 되새기면서 좁게는 가문과 종친의 榮光과 和음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넓게는 사회와 조국을 위해서도 빛나는 역할을 하는 순천김씨 종인이 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 다짐하고 또 실천해 나가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敎養講座 기간 동안, 몸 건강하고 유익하게 보내길 기대하며 종인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家庭에 和平과 幸福이 넘칠길 바랍니다. 1998년 8월 13일 柯谷公派 14代孫 한화그룹 회장 金昇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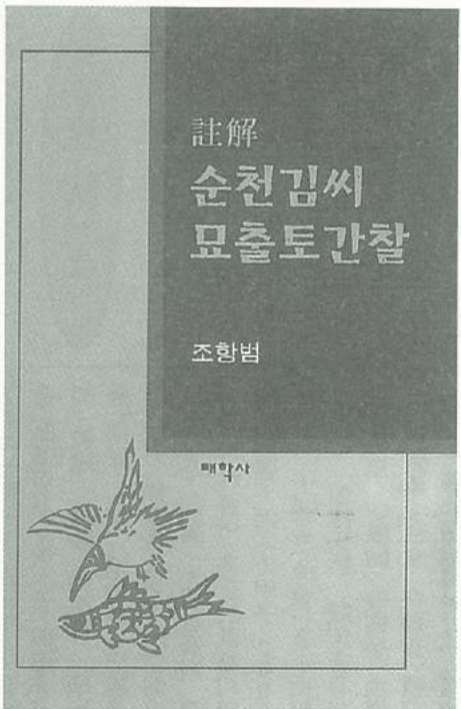
## 天安、牙山地域 宗親會

天安 牙山宗親會에서는 98年 6월 13日 金泰淵 宗親會長을 비롯하여 宗親約 20名을 引率하여 開慶 加恩邑 鶴泉里 所在 月潭祠를 參拜하고 管理人 金鎔永 宗親에게 一金壹拾萬원을 獻誠하였으며 祖上님들이 이루어 놓은 史蹟地를 돌아보고 다음날은 京畿道 安山市에 있는 北潞公 墓所도 參拜하고 四世忠烈門等 遺跡을 고루 돌아보면서 宗親間의 紐帶와 崇慕精神을 昂揚시키는 契機로 삼았다.

# 順天金氏墓出土簡札

註解 金씨 墓出土 簡札 金錫鉉 著

조한범



지난 1977年度 淸原郡 北一面 飛行場 建設工事로 仁川蔡氏宗中 先代墓所 移葬당시 발견된 400여년 전 人物로 蔡無易의 夫人 順天金氏가 生생한 미이라 狀態로 保存되어 있었으며 衣類 10여벌과 가족신 그리고 192통에 달하는 한글 書簡이 발견되어 世人的의 耳目을 集中시킨 바 있고 有關學界에서는 貴重한 文化的 價値를 認定하여 重要民俗資料 109號로 指定하여 現在 忠北大學校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고 國語國文學科 博士이며, 現在 忠北大學校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趙恒範 教授에 의해 당시 한글 書簡이



이 冊에 登場하는 順天金氏 人物로는 襄景公祖의 高孫인 「粹」字「濂」字(牧使公)의 子로서 「璵」字(省峴察訪)의 3男4女 중에 셋째 딸남으로 壯毅公(汝暻)과는 男妹之間이시고 北潞公(濂)字에게는 姑母님이 되신다. 各地域 및 支派 宗親會에서 備置하고 많은 宗親들과 後世들이 必讀하여 自我存在 由來와 自己存在 價値意識을 確固히 하며 崇慕宗親思想을 鼓吹시켜주므로서 우리 門中의 名門位上을 高揚하고 우리 血統子孫孫이 矜持를 갖고 自信心이 充滿한 삶을 營爲하기를 祈願하는 마음으로 이 冊을 必讀하시기 바랍니다. 圖書購入 案內는 本 中央宗親會로 連絡하시면 자세한 案內에 드리겠습니다. 總務幹事 世淵

### 讀者詩壇

## 失鄉民의 秋夕

其一  
南行歸省人波長  
남녘의 귀성 인파는 줄을 잇는데  
失鄉吾等無行路  
우리들 실향민은 갈 곳이 없네  
念念不忘惟思鄉  
오로지 고향생각만은 잊을 수 없어  
欲向北路行行重  
북녘을 향한 길 가고 또 가노라니  
鐵馬朽壤路阻長  
기차는 썩어 무너져 길이 막힌지 오래라  
不敢生意留步行  
감히 멈추려 못내고 걸음을 멈추었네  
遠見虛舟欲渡江  
멀리 보이는 빈 배길 강을 건너려고 하니  
臨津渡口無司空  
임진강 나루에 맷사공은 간데 없네

其二  
欲歸暫留向南天  
잠시 머물렀다 돌아가려고 남쪽에 온지  
流光無常半世紀  
덧없는 세월은 반세기가 흘렀구나  
江樹依依千古青  
강수는 오랜 옛적부터 여전히 푸른데  
人生何故老白髮  
인생은 무슨 까닭에 늙어 백발이 되는가  
若問何時返故鄉  
만약 언제 고향에 가는가 묻는다면  
離跡悠悠難可尋  
떠나온 자국 하도 오래되어 찾기 어려우리  
燕鴻秋景不何關  
제비 기러기는 가을정치가 아랑곳 없이  
只緣舊巢南北飛  
다만 옛 둥지를 찾아 남북으로 나네

說語銘 金銘桓 謹作 (順天郡 新倉面 馬洞里生) 一九九八年 仲秋



# 順天金氏宗報

本宗報는 順天金氏中央宗親會會員 家口當 1部씩을 無償으로 配布합니다.

發行人 金鍾植  
編輯室長 金浩淵

發行所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7-47  
電話: (02) 3474-0529  
(02) 587-0529  
FAX: (02) 581-0529  
印刷所: 文苑文化社  
題字: 無影金仁厚

## 第13回 大學生 教養講座 盛了

### 全國에서 男女大學生 28名 參席



8月 13日부터 16日까지 3泊4日 동안 예년에 없던 集中豪雨속에서도 변함없는 日程에 따라 今年度 第13回 大學生 教養講座를 同源齋에서 大禍없이 盛大히 마칠 수 있었음은 실로 多幸한 일이며 또한 始祖의 德을 繼承하여 靈의 보살핌을 받은 자라에서 靈의 보살핌을 받았음을 充分히 느낄 수 있었다.

무엇고 지루한 장마속에서의 強行軍이었음에도 京鄕各地에서 많은 宗親들이 遠距離를 떠나 來고 찾아주셔서 아낌없는 激勵과 協贊을 하여 주심에 이번 行事가 더욱 빛날 수 있었고, 또한 芳春書院을 訪問하여 皮膚로 接한 現場教育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祖上님들이 흘려가게 남긴 功績과 位相을 가슴 깊이 깨닫고 느끼도록 順金의 後孫으로 태어남을 自負

와 矜持를 가짐에 보람있는 教育日程에 參與하여 주신 宗親 모든 분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日程으로 計劃하여 順·金의 뿌리教育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려면 宗親들의 많은 關心과 同參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門中固有의 教養講座 行事는 現實적으로 어느 때보다 더 메달라가는 人性教育 不在의 社會構造속에서 切實히 要望되는 人義孝의 思想을 鼓吹시키는 契機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三綱(상강)
  - 一、君爲巨綱(군위신강) .. 신하는 임금에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 二、父爲子綱(부위자강) .. 아버지는 아비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 三、夫爲婦綱(부위부강) .. 아내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 五倫(오륜)
  - 一、君臣有義(군신유의) .. 임금은 과신하는 의가 있어야 하고
  - 二、父子有親(부자유친) ..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하고
  - 三、夫婦有別(부부유별) ..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 四、長幼有序(장유유서) ..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 五、朋友有信(붕우유신) .. 벗과 벗은 믿음에 있어야 하고
- 禮儀五常(예의오상)
  - 一、仁(인) .. 어질게 살아가야 한다.
  - 二、義(의) .. 의리가 있어야 한다.
  - 三、禮(예) .. 예의가 있어야 한다.
  - 四、智(지) .. 지혜가 있어야 한다.
  - 五、信(신) ..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이 이 時代에 살아가면서 先人의 말씀을 生活화하는 順·金의 後孫이 되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 宗旗統一化

中央宗親會에서는 98년 8월 11일 이사회와 8월 25일 회장단회의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宗論을 一致하여 順天金門의 象徵인 宗旗를 統一規格으로 製作配付하기로 하였으며 各地域 宗親會와 各派宗會에서는 指定된 심벌마크 의에 地域과 派宗會 名稱을 넣어서 製作할 計劃이오니 必要한 地域과 派宗會에서는 中央宗親會로 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宗旗解說

우리 順天金氏 宗旗의 鳳凰과 飛龍은 易學의 次元으로 보면 鳳凰은 乾陽으로 火運을 象徵하고 飛龍은 坤陰으로 水運을 象徵하는데 水와 火는 相極이나 宗旗의 鳳龍은 對立이 아닌 循環形으로 配置하여 中央에 順天金이 들어 있어 順理와 造化로서 水火相沖을 막고 새 歷史를 創造하는 造化主宰形이라 우리 順天金門의 前途는 蒼蒼함을 意味한다.



## 大同譜 發刊公告

本 中央宗親會에서는 大同譜 發刊을 着手하기 위하여 1998年 8月 11日 理事會議와 8月 25日 會長團會議의 決議를 거쳐 大同譜 發刊 專擔機 構로서 順天金氏 大同譜編纂委員會를 10月 中旬까지 結成하고 이를 本格가동하여 收單을 接收할 계획으로 있사오니 各地域宗親會長님과 各派宗親會長님은 물론 全國에 散居하시는 宗親께서는 積極 參與하여 주시기를 敬望하오며 細部事項은 準備가 되는대로 執行部에서 마련된 資料를 特報로 配布할 것임을 公知하나이다.

###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1998年 9月